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적 讀法*

—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배 우 성**

1. 머리말
2. 표준형의 구성과 문제점
   1) 구성상의 특징
   2) 의문점과 변형 사례
3. 초기의 책이름과 구성
   1) 초기 택리지의 두 계열
   2) 『卜居說』의 구성
4. 택리지의 지리지화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에 어찌 사대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호의 후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왕과 성현의 후예들로서 요순 문무 주공의 법제를 닦았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대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대부는 모두 본국인의 후예일 뿐이다."[1)]

"역사상 이 나라에 진정한 사대부는 없었다"고 외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가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로 평가되는 李重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활자화된 택리지나 번역된 택리지 그 어느 쪽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도발적인 문구는 18, 19세기에 널리 읽혔던 수많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A00021).

1) 『擇里誌』(규장각, 古4790-55) 四民總論 "我國寧有士大夫 中原人 除五胡裔 皆以帝王聖賢之後 修堯舜文武周孔之法制 此爲眞正士大夫 乃我國之所謂士大夫 皆本國人 苗裔"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필사본 택리지들에서 예외 없이 확인할 수 있다.

崔南善이 교열한 光文會本 택리지는 대표적인 활자본이며, 이것이 오늘날 널리 보급되어 있다. 최남선은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택리지를 모태로 하면서도 그 일부를 과감하게 수정함으로써 원래의 맥락을 흔들었다. 위 인용문은 광문회본 택리지 〈총론〉의 첫머리에 왔어야 마땅하지만, 최남선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皇朝', '朝貢'이라고 쓰여 있던 단어들을 '明朝', '通涉'으로 바꾸었다.[2]

최남선은 국토의 형상과 事大의 역사에 관한 이중환의 논리에도 수정을 가했다. 이중환은 국토의 생김새가 노인을 닮아서 중국에 '忠順'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주변의 오랑캐들과는 달리 중국에 사대했으며, 도덕국가로서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서 일찍이 기자가 이곳에 와 임금이 되었다는 것이다.[3]

최남선은 '충순' 대신에 '親泥'를, '恪勤事大' 대신 '不敢意他'를 사용했다. 이중환이 말했던 '정성스럽게 사대한 역사'는 최남선에 의해 '감히 중국 진출 등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무기력한 역사'로 바뀌었다. 이중환은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사대의 역사를 당연시하려 했지만, 최남선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최남선은 택리지를 교열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읽고 있었다. 말하자면 최남선은 자신이 다시 읽은 택리지를 대중 앞에 내놓은 것이었다.

최남선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광문회본 택리지는 이후 택리지 연구의 기본 텍스트가 되었다.[4] 필사본에 대한 서지적인 소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

---

2) 이중환에게 조공, 황조 등의 표현은 근대적 의미의 지배예속관계가 아니라 중화의식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최남선으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3) 『擇里誌』(규장각, 古4790-55) 山水 "古人謂我國 爲老人形 而坐亥向巳 向西開面 有拱揖中國之狀 故自昔忠順於中國 而且無千里之水 百里之野 故不生巨人 西戎北狄與東胡女眞 無不入帝中國 而獨我國無之 惟謹守封域 恪勤事大 然鰲在海外 別是一區 故箕子不欲臣周 至此爲君"

4) 택리지가 실학적 인문지리서로 자리매김된 것은 이른 시기였지만, 택리지 연구가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91년에 열린 진단학회의 한국고전연구심포지움에서였다. 택리지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 (『진단학보』 69호 : 진단학회, 1991, 『한국고전심포지움』 3, 일조각) 택리지에 대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만,[5] 광문회본과의 차이는 여전히 의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남선에 의해 가려진 이중환의 면모가 있었다면, 광문회본에 의해 가려진 택리지들도 많지 않았을까.

이 글은 조선후기 당대에 있었던 다양한 택리지 읽기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이 '역사학적 독법'인 것은 당대적 맥락에서의 택리지 읽기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필사본을 선정하고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택했다. 규장각,[6] 국립도서관,[7] 장서각,[8] 서울대 도서관,[9] 고려대 도서관[10] 등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약 50종에 달하는 택리지 필사본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이 50여종이 모든 필사본을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택리지에 대한 조선후기의 독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광문회본 택리지를 읽다가 느끼게 되는 어색함은 어떤 것들인가. 그 어색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최남선 이전의 택리지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

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결코 적다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위 진단학회 심포지움에서 수렴되고 있다.

5) 小石晶子. 1985「李重煥と擇里志」,『朝鮮學報』115 : 西川孝雄. 1986「擇里志の異名について-文獻目錄-」,『韓』103

6)『東國山水錄』(상백고9151D717),『東國總貨錄』(奎15537),『博綜誌』(奎3742),『東國山水錄』(奎11638),『朝野信筆』(奎15580),『增補山林經濟』(奎7676),『震維勝覽』(古4790-38),『震維勝覽』(奎7732),『震維勝覽』(상백古915.1.J563),『擇里志』(古9151y58t),『擇里志』(奎4790-55),『擇里志』(일사고915.1y58t),『八域誌』(상백고9151y58c),『飄然堪超世』(奎7492)

7)『邱隅誌』(古2709-3),『東國山川關防軍政總錄』(한고조60-5),『卜居說』(조60-28),『士大夫可居處』(고2700-105),『野史略記』(승계고2701-4),『震維勝覽』(고귀2700-11),『震維勝覽』(한고조60-70),『青華漫錄』(古2701-5),『擇里誌』(고2700-12),『擇勝誌』(조60-29),『八域記』(한조60-67),『八域誌』(한고조60-17),『八域誌』(한고조60-50)

8)『東國山川錄別集』(K2-4346),『東國總貨錄』(K2-4189),『東輿彙覽』(B15AB-9),『博綜誌』(귀K2-4180),『震維勝覽』(B15AB-16),『青邱志』(B15AB-2A),『擇里誌』(B15AB-2B),『擇里誌』(K2-4190),『擇里誌』(K2-4192),『擇里志』(B15AB-2),『八域可居處』(K2-4191)

9)『八域誌』(고서간행회본),『八域誌』(일석915.1.Y58pp)

10)『東國山水誌』(B10A127신암),『震維誌』(B10A119신암),『擇里志』(B10A3),『擇里誌』(B10A3A),『擇里志』(B10A3B),『擇里誌』(B10A50A육당),『擇里誌』(B10A50육당),『擇里誌』(만송B10A3B 1),『八域要覽』(B10A132신암),『八域誌』(B10A186),『八域誌』(만송B10A185)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었고 이해되었는가. 택리지의 여러 다른 이름들 속에 담긴 숨은 뜻은 무엇인가. 택리지의 저자는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는가. 택리지는 어떻게 변용되고 활용되었는가. 이중환이 택리지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일차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 한다.[11]

2. 표준형의 구성과 문제점

1) 구성상의 특징

광문회본 택리지에 드리운 최남선의 그림자를 걷어낸다고 해서 이중환이 쓴 택리지, 더 나아가 당대에 널리 읽혔던 택리지의 맥락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사본들을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택리지들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광문회본은 그런 의미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광문회본은 조선후기의 택리지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필사본의 구성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교 검토의 편의를 위해 광문회본을 기초로 가상의 標準型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광문회본에는 서문과 발문이 없지만, 필사본 중에는 서문과 발문, 기타 李瀷의 『성호사설』 등 관련 기사들을 보충한 사례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표준형에서는 서문과 발문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준형은 광문회본을 따라 네 단원으로 나뉜다. 〈四民總論〉, 〈八道總論〉(도입부와 8도), 〈卜居總論〉(도입부와 地理, 生利, 人心, 山水), 〈總論〉이 그것이다. 〈사민총론〉은 서론에,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은 본론에, 〈총론〉은 결론에 각각 해당한다.

표준형은 세부적으로 광문회본과 다른 점도 있다. 성격이 다른 글이 같은 항목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락을 끊거나 소제목을 달아 구분했다. 단락은 내용상 임의로 구분했으며, 소제목은 다른 필사본을 참고했다. 팔도를 각각 지리역사와 總評으로 나눈 것, 山水 항목 안에 名山, 名刹, 都邑, 隱遁, 海山,

11) 이밖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질문들은 별도의 접근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嶺東, 四郡, 江居, 溪居 등의 소 항목을 둔 것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는 말미의 〈표 1〉과 같다. 〈표 1〉에는 표준형의 소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광문회본의 원문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표시해 두었다. (말미의 〈표 1〉 참조)

〈사민총론〉은 사대부 신분이 다른 신분과 달라지게 된 유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표 1〉의 사료번호 1. 이하 괄호안의 번호는 〈표 1〉에 있는 사료번호임.) 〈팔도총론〉의 도입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崑崙山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팔도, 그리고 단군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간략한 역사(2)가 한 단락이라면, 고려시대에 사대부가 생겨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3)이 나머지의 한 단락에 해당한다. 도입부 뒤로 팔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도 내 주요 생활권역, 사회경제적 조건, 관련 일화, 문화 등이 그 안에 있다.(4에서 15까지)

〈복거총론〉은 본론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 취락입지의 기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지리가 좋은 곳은 양택풍수의 조건들을 갖춘 곳이다.(17) 농업생산력과 유통경제는 생리의 필수적 조건들이다. (18, 19) 그러나 사대부로서 유통경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20) 인심이 좋은 곳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민심이 순박한 곳을 말한다.(21) 그러나 사대부에게 인심이 좋은 곳이란 곧 당쟁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22)

산수의 도입부는 백두대간에서 흘러 내린 산줄기(23), 유구국 왕자의 일화(24), 물줄기의 흐름(25), 중화의식과 국토의 형상(2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서 명산, 명찰, 도읍, 은둔, 해산, 영동, 사군, 강거, 계거 등이 산수의 본문을 구성한다. 금강산을 비롯한 12개의 대표적인 산들은 명산으로 불리는데, 특히 이곳들 가운데 '福地'가 많다 한다. (명산, 27) 이밖에 산 가운데에는 유명사찰이 있는 곳(명찰, 28), 도읍이 될만한 곳(도읍, 29), 도읍에는 못 미쳐도 수도자가 들어가 있을만한 곳(은둔, 30),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만 산 그 자체로 이름이 있는 곳(기타, 31), 섬 안에 있는 것(해산, 32)들도 있다.

또 이름난 산은 아니지만 강이나 계곡을 끼고 있거나 호수가 있어서 절경을 이룬 곳들도 있다. 영춘 단양 등 충청도 내에 강을 끼고 있는 명승지가 전자라면(사군, 36), 영동지방의 호수들(영동, 33, 34, 35)은 후자에 해당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명산에서 사군, 영동까지가 산수 자체에 대해 소개한 것이었다면, 강거, 계거(山溪, 野溪) 등은 산수의 조건상 사대부가 살만한 곳들을 소개한 내용이다.(37,38,39) 그러나 산수 항목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사대부가 산수의 조건만을 보고 살 곳을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40)

〈총론〉은 결론에 해당한다. 조선 역사상 진정한 사대부가 없었다는 〈총론〉 첫 머리의 주장은 당파싸움에 대한 비판, 사대부로서의 삶의 자세, 그리고 살 곳에 고민으로 이어진다.(41)

택리지에는 정치, 경제, 지리, 사회, 문화에 대한 이중환의 생각이 골고루 녹아 있기 때문에 다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지금까지의 많은 택리지 연구들은 그런 학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택리지를 읽어온 방식이다. 다학문적 접근은 이중환이 가진 실학적 사유의 다양한 측면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이중환 자신의 근본 문제의식은 여전히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한 인물이 당대의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저술을 통해 저자의 사상에 접근해 들어간다면 저술 그 자체가 가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택리지 전편을 관통하는 이중환의 저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가상의 표준형을 설정하고 그 특징과 구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가상의 표준형은 광문회본의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은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한다. 그러나 표준형 계열의 모든 필사본들에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형과는 다른 제목이 붙어 있거나 아예 제목 없이 단락만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표준형 계열 가운데에는 각 도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거나 도별 경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복거총론〉의 소항목들에 제목이 쓰여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평안도」의 말미와 「함경도」의 시작부분,[12] 「충청도」의 말미와 「경기도」의 시작부분

12) "平安之東 白頭大脈南下 截天爲嶺 嶺東卽(咸鏡道)"라는 기사는 많은 표준형 계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기사[13]는 같은 표준형 계열 안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팔도총론〉 가운데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전라도」의 말미에 붙어 있는 총평이(5, 7, 9, 13)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에는 없다. 주목되는 것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총평이다. 「평안도」의 총평은 청천강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적은 것이다.(5) 반면 「함경도」의 총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이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함경도의 총평이 아니라 평안-함경도에 대한 총평에 해당한다.[14]

이중환이 백두산 중심의 산줄기 인식 체계를 따르면서도 팔도 가운데 평안도를 첫 머리에 내세운 점도 특징적이다.[15] 〈팔도총론〉의 도입부, 〈복거총론〉 「생리」의 두 부분, 「인심」 「산수」에서는 "此(乃, 혹은 皆)我國(혹은 八道)○○之大略也"라는 유사한 형태의 표현들이 보인다. 원문은 단락 구분이 없이 계속되지만, 대체로는 이 표현을 경계로 앞뒤 문장의 맥락이 달라진다.[16]

2) 의문점과 변형 사례

표준형은 그 형식과 분량으로만 보면 매우 잘 짜여진 느낌이다. 그러나 주

열 사본에서는 함경도의 시작부분에 있지만, 『八域誌』(서울대, 일석915.1.Y58pp)와 같은 표준형 필사본에서는 평안도 말미에 있다.

13) "忠州之西 與京畿竹山驪州接界 竹山七長山 卓立於畿湖交界 西北小行 大斷於水踰峴 爲平地 復起爲龍仁負兒山 爲石城山 爲光敎山"이라는 기사는 대부분의 표준형 필사본에서는 경기도의 시작부분에 있지만, 『卜居說』(국립도서관, 조60-28), 『八域誌』(국립도서관, 한고조60-50)과 같은 표준형 사본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구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卜居說』(국립도서관, 승계 古2701-4)에서 인용된 사료보다 더 앞쪽의 사료에서부터 경기도가 시작되고 있다.

14) 도별 구분이 불분명한 필사본 중에는 물론 표준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명한 도별 서술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작은 사실 하나로 책자 전체에 대한 이중환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 〈팔도총론〉의 도입부, 산수 항목의 도입부는 모두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팔도총론〉의 팔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평안도이다. 이중환이 〈팔도총론〉을 기자의 전설이 얽혀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실제 평안도 기사 가운데에는 기자와 관련된 서술이 적지 않다.

16) 이밖에도 사소한 문제점들도 눈에 띤다. 예를 들면 사군과 영동의 설명 순서는 표준형의 본문 안에서 일치되지 않고 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의 깊게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곳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서론(〈사민총론〉)과 본론의 첫 단락(〈팔도총론〉)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 우선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사농공상을 막론하고 사대부의 행실을 닦아야 한다는 서론의 요지는 지리와 역사, 고려시대 사대부의 내력을 적은 〈팔도총론〉의 도입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평안도」에서 「경기도」에 이르는 도별 설명들은 각 도 내의 지리, 경제, 풍속, 주거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논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역시 서론의 요지와 무관하다.

본론의 두 번째 단락(〈복거총론〉)과 결론(〈총론〉)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이 없는 것도 어색한 부분이다. 〈복거총론〉에서 전개된 살만한 곳에 대한 논의들은 결론부에서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 결론은 역대의 신분제와 사대부의 유래, 당대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본론의 두 단락 사이에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현상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경제 관계 기사처럼 전후의 논지가 비교적 일관된 경우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중환은 〈팔도총론〉에서 거론한 경제 분야 내용을 〈복거총론〉「생리」 항목에서 분야별로 재정리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발전론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한다.[17] 물론 택리지의 경제관계 기사만을 추려 읽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다. 그러나 이중환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것은 결코 좋은 구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팔도총론〉과 〈복거총론〉 사이에 전혀 상반된 이미지의 정보들이 담겨있는 경우는 더욱 혼란스럽다. 〈팔도총론〉에서 평안도는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복거총론〉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평안도는 인심이 전국에서 가장 순박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한다.[18] 그런가하면 평양 外城 지역이 江居로는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도 있다.[19]

취락입지의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본론의 후반부인 〈복거총론〉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되는 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팔도총론〉에 따르면, 평안

17) 오성, 1990 「택리지의 〈팔도총론〉과 생리조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69, 151-155면

18) 『擇里志』(光文會本) 卜居總論 人心 "我國八道中 平安道 人心醇厚爲上"

19) 『擇里志』(光文會本) 卜居總論 山水 "江居則 以平壤外城 爲八道第一"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도, 함경도 지역이 사대부의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은 오래 전부터 사대부가 없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20] 지역 차별정책으로 인해 인재가 없어졌으며, 문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때문에 서울 사대부와의 교류마저 없어졌다 한다.

황해도는 평안도와 가까워 무를 숭상하는 반면 공부하는 선비는 적다 한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산수의 조건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유사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점이 큰 단점이라 한다.[21] 이중환은 전라도에 대해서도 경제적 조건, 서울로부터의 거리, 풍속 등을 약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살기에 적합지 않은 곳'들에 대한 〈팔도총론〉 안에서의 설명은 취락입지에 대한 일반론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산적이고 무원칙적인 느낌을 준다.

〈팔도총론〉은 산줄기의 흐름을 따라 지역 생활권들을 설명한 부분인데, 정작 조선의 산줄기 전체에 대한 설명은 〈복거총론〉의 「산수」 항목 도입부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서 역시 어색한 느낌을 준다.

필사본들 중에는 표준형에 가까우면서도 변형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東國山川錄別集』(K2-4346)은 표지에는 『東國山川別錄』으로 되어 있지만, 책 안에는 『東國山川錄別集』으로 되어 있다. 내제 아래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팔도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본이 별집이라면 별집에 대응하는 원집은 아마도 표준형의 〈복거총론〉과 〈총론〉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사민총론〉이 〈팔도총론〉의 도입부처럼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형과 유사하지만, 표준형의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을 병렬적인 본문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표준형과 다른 면모이다.

『擇里志』(규장각, 古951.5-Y58t)는 전체적으로 표준형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四民說〉과 〈士大夫論〉이라는 이름으로 책머리에 연달아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眞維

20) 『擇里志』(光文會本) 八道總論 咸鏡道 "太祖以將帥 受王氏禪代 其佐命功臣 又多西北猛將 既得國 遺命西北人勿大用 以故平安咸鏡兩道 三百年來 無顯官 (中略) 且國俗重門閥 京城士大夫 不與西北人爲婚娶平交 西北人 亦不敢與士大夫抗禮 西北兩道 遂無士大夫 士大夫亦無往居者 (中略) 是故 西北咸平二道不可居"

21) 『擇里志』(光文會本) 八道總論 黃海道 "大抵 一道 處國都西北 地隣平咸 俗喜弓馬 而鮮文學之士 (中略) 雖多富厚者 亦少士大夫家矣 然野中八邑 土既膏沃 海上十邑 地多名勝 亦非不可居之地 (中略) 天下有事 當爲要衝爭戰之場 此其所短也"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勝覽』(규장각. 古4709-38)에는 책의 말미에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달아 붙어 있는데, 필사자는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22] 이 두 필사본들은 저자를 암시하거나 명시하고 있고,[23]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표준형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일제시기 古書刊行會에서 펴낸 활자본 택리지는 표준형처럼, 도입부, 본문,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본에도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래는 서로 연결된 내용이었음을 말해주는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책의 도입부와 결론부, 즉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양쪽에는 모두 〈四民總論〉이라는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24]

많은 택리지 연구들이 왜 이런 어색함과 변형 사례들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다양한 방식의 택리지 읽기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광문회본, 그리고 광문회본에 토대를 둔 가상의 표준형은 대체로 조선후기에 유행한 많은 필사본들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대의 모든 택리지가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택리지는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르게 읽혔던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의 다양한 택리지 읽기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은 채 광문회본에서 느끼는 어색함을 단순한 구성상의 결함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초기의 책이름과 구성

1) 초기 택리지의 두 계열

택리지는 얼마나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얼마나 다양하게 읽히고 있었는가.

---

22) 『眞維勝覽』 (규장각. 古4709-38) "擇不得其居 則不能自立 故謹稽八路之地理人心生利山水之大略 論著如右 而係之曰"

23) 『擇里志』(古 951.5-Y58t)는 책머리에서 "靑華山人 著"라고 되어 있고, 『眞維勝覽』(古4709-38)은 표준형의 〈사민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서 "李徽祖曰"이라 했다.

24) 『擇里誌』 (규장각. 古4790-55) 역시 표준형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양쪽에 모두 '四民總論'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택리지가 수많은 다른 이름들로 불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책이름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도 있다.

현재까지 택리지에 서문이나 발문을 쓴 사람으로는 李瀷, 丁若鏞, 鄭彦儒, 李重煥, 睦聖觀, 睦會敬, 李鳳煥이 알려져 있다. 필사본들 가운데에는 서문과 발문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경우에서 정언유, 이중환, 목성관, 목회경, 이봉환의 글이 모두 수록된 경우까지 다양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택리지"는 이익이 서문을 붙이면서(1752년, 영조 28) 부른 이름이라 한다.[25] 그러나 『성호집』의 판본에 따라서는 이익의 글이 "八域志의 서문"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26] 같은 해 목성관 목회경이 발문을 붙일 때에도 이중환의 책은 "택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가 하면 이듬해(1753년, 영조 29) 정언유와 이봉환은 이 책을 "八域可居處"로 불렀다. 이중환 자신의 발문에서는 '擇里志' 혹은 '擇里誌'로 표시되어 있다.[27] 이중환은 또 표준형 〈사민총론〉과 〈총론〉의 말미에서 자신이 "士大夫可居處"를 지었다고 말했다. 〈표2〉는 남아 있는 필사본들에서 책이름과 저자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말미의 〈표 2〉 참조)

이중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 물론 본문 안에는 저자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중환 자신과 그 주변인물들이 붙여 놓은 서문과 발문에서도 저자가 이중환임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드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서문이나 발문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적다.

저자가 이중환임을 드러낸 것으로는 이익과 정약용의 서문이 있다. 그러나 이익의 서문이 붙어 있는 필사본은 현재 단 1종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며, 정약용의 서문은 그의 문집에서만 확인된다.

---

25) 小石, 1985 「李重煥と擇里誌」, 『朝鮮學報』 115, 85-86면

26) 이익이 쓴 서문은 퇴로판 『성호집』에서는 '팔역지'의 서문으로 되어 있다.(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19면) 반면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성호집』이나 이익의 서문이 들어 있는 『八域要覽』(고려대, 신암 B10-A132)에서는 모두 「擇里志序」로 되어 있다.

27) 이중환의 발문 제목 중에는 『東國山水誌』(고려대, 신암, B10A127)가 유일하게 '可居誌'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 필사본은 필사자의 가필 및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可居誌'를 이중환 자신의 발문 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안정복도 택리지를 보고 『萬物類聚』에 관련 내용을 상당히 많이 요약해 두었다. 『만물류취』의 내용 가운데 영조대를 '英廟'라고 쓴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안정복이 정조 초에 이 책자를 편집했던 것을 알 수 있다.[28] 그러나 안정복은 『만물류취』에서 그 인용문의 출처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문집 어디에도 이중환이나 택리지에 관한 기사는 없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택리지가 "사대부가거처"라는 책제목을 가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일정한 통일성, 관련성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은 당대인의 기록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李殷模라는 문신이 택리지를 본 것은 1771년(영조 47)이었다. 이은모는 홍덕 출신의 실학자 황윤석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보게 된 작은 책자 이야기를 꺼냈다. 이 책자는 나라안의 산천과 풍속, 취락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는 평양 外城 지역과 경상도 善山 지역을 훌륭하다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은모는 필자에 대해 식견이 풍부하고 풍수에도 정통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29]

며칠 뒤 황윤석을 다시 만난 이은모가 그 작은 책자 얘기를 또 꺼냈다. 이은모에 따르면 이 책자는 "八道山水摠論"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談勝錄", "士大夫可居地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었다. 책자 안에 저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책의 내용을 읽어 보면 저자가 숙종대 이후의 조선 사람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30]

평양 외성은 표준형의 〈복거총론〉 「산수」(山居)에, 선산지역은 〈팔도총론〉

---

28) 安鼎福, 『萬物類聚』, 地理類 險阻幷城池 (『順菴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938면) "入我朝 置留守官鎭守 及英廟 留守金始赫 築城於東面 北自燕尾亭 南至孫石項"

29) 黃胤錫, 『頤齋亂藁』 권17, 起辛卯 一月 止同年三月, 三月十三日甲寅 "(李)子敬 又言 近得一小書 摠記國中山川風俗可居之地 而以平壤外城爲首 如善山一邑 亦在所稱 但未知何人所爲 然其人必有高識達觀 兼通風水者耳. 方求可居之地 適得此書 頗可開眼"

30) 黃胤錫, 『頤齋亂藁』 권17, 起辛卯 一月 止同年三月, 三月十七日戊午 "(李)子敬言.. 又得見東人所撰八道山水摠論 亦名談勝錄 亦名士大夫可居地記 蓋肅廟以後人所撰也 遍論山水土地風俗 殊可一閱"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의 「경상도」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이 필사본은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대부가거지기』를 『사대부가거처』와 같은 유형의 제목으로 본다면, 이 제목을 가진 책자들에서도 이중환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황윤석이 또 다른 택리지 필사본을 읽게 되었던 것은 1786년(정조 10)에 이르러서였다. 이 필사본에는 저자, 제목, 서문 등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 있었다. "택리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전 좌랑이며 청화산인이라는 호를 쓰는 이중환의 작품이며, 친구인 정언유의 서문이 붙어 있었다 한다. 황윤석에 따르면 이 책은 이중환이 세상을 등지고 살 곳을 찾기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31]

황윤석이 『이재난고』에서 기록해 두었던 두 개의 책자는 모두 택리지의 필사본들이다. 그러나 황윤석은 1771년(영조 47)에 이은모로부터 전해들은 책자와 1786년(정조 10)에 자신이 직접 읽은 책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 저자 "이중환", 책이름 "택리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보고 15년 전에 전해들은, 저자 표시도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책을 연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택리지의 최초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서문이나 발문도 없는 필사본이 이미 영조대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낳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중환이 가진 당대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중환의 비판의식은 탕평정치를 포함한 당대의 정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淸南系로서 그가 가진 정치적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이중환은 사대부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만 탕평정치의 허실에 대해, 그리고 조정이 사대부를 믿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불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31) 黃胤錫, 『頤齋亂藁』 권38, 丙午六月十七日己丑 "前兵佐李重煥 自號靑萃山人 興世不遇 思卜居自放 乃作 擇里志 遍論八路士大夫可居處 而其友東堂鄭彦儒林宗序之 然其以關西爲淳厚者 大誤"
황윤석은 택리지의 내용 가운데 관서지방의 인심이 순후하다는 것, 한무외와 관련된 고적이 오대산에 있다는 기사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 소외론을 주장하던 황윤석이 호남에 대한 이중환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는 탕평정치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다. 사색당파를 등용함으로써 사람에 비해 자리가 모자라게 된 것. 銓郎自代制를 폐지함으로써 사대부들이 명예나 염치 대신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 점이 그것이었다. 그는 탕평정치의 결과 높은 관직을 조급히 탐내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32]

이중환에 따르면 문제는 사대부들에 대한 국왕 英祖의 태도에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대부들의 주도로 무신난이 일어난 뒤에는 왕은 늘 의심 섞인 눈초리로 사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사대부는 벼슬에 나아갈 수도 , 그렇다고 조용한 시골에서 은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33]

이중환에게는 노론 정치세력과의 갈등도 문제였다. 택리지 필사본 가운데 보이는 짧은 기록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震維勝覽 : 전 좌랑이자 성호 이익의 집안사람인 이중환이 지은 것인데, 洪啓禧가 고치거나 덜어낸 부분이 자못 많다 한다.[34]

홍계희의 아버지 洪禹傳은 이미 오래 전에 이중환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숙종대 말 언관으로 있던 홍우전이 李知聖이란 인물에 대해 주서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상소를 올렸다. 선임 주서였던 이중환이 그 소식을 듣고 홍우전을 비판했다. 벌열가문 출신의 언관이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배척한다는 것이었다. 홍우전은 이중환이야말로 당파를 비호하는 데 급급하여 여론이 어떤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인물이라고 몰아세웠다. 대리청정중이던 세자는 여론의 추이를 기다려보자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무마시켰다.[35] 만일 이 기록대로 홍계희가 택리지에 손을 댔다면, 그것은 당대의

---

32) 『擇里志』(光文會本) 卜居總論 人心 "朝廷行蕩平久矣 四色合仕 窠狹人稠 固多奔競 而又龍銓權郞益之 於是 躁貪大作 縉紳間風俗 一壞而 不可復收"

33) 『擇里志』(光文會本) 總論 "不幸戊申諸賊 其身則以士大夫 從鄕邑有事 故及其除之後 朝廷每疑山林幽僻 有大盜竊發 不疑其爲盜 則又疑其心跡 加以詭僻之名 欲進而仕於朝 刀鉅鼎鑊之爭 紛然未已也 欲退而處于野 則非無靑山萬疊 綠水千重 而卒未易往 士大夫於是乎將安歸乎"

34) 『震維勝覽』(장서각, B15AB-16) "震維勝覽 前佐郎李重煥製(星湖家人) 啓禧改删頗多云"

35) 『承政院日記』 521책, 숙종 46년 2월 14일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정치적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

홍계희는 대표적인 노론 벌열가문 출신이었으며, 이중환은 남인 명문가 태생이었다. 이중환은 살만한 곳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던 실존적인 고민을 책 속에 담았다. 그러나 택리지를 바라보는 노론계, 혹은 남인 淸南계의 시선이 이중환의 그것과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홍계희의 입장에서 보면 택리지는 청남계 정치세력이 노론 벌열세력을 교묘하게 비판한 책자일 뿐이었다. 남인계 필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자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 책을 다양한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위험을 덜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 필사본의 구성이다. 표준형을 읽다가 느끼게 되는 어색함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초기 필사본의 구성으로부터 어색하지 않은 원래의 맥락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책이름의 문제로 돌아가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卜居說』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한 필사본은 택리지의 초기 서명과 관련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청화산인 이중환의 작품이며, 처음의 이름은 卜居說이었는데 뒤에 택리지로 고쳤다"는 것이다.[36] 그런가 하면 "八域可居處" 혹은 "士大夫可居處"가 택리지의 '本名'이라고 적은 필사본도 있다.[37]

물론 이 기록들만을 가지고 "복거설", "팔역가거처", "사대부가거처" 등으로 이름 붙여진 필사본들을 초기 사본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런 제목을 가진 필사본들은 정형화된 표준형 택리지에 가까운 것들이다. 반대로 "택리지"라는 책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표준형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른 제목을 가진 필사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 글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다른 필사본들에서 택리지의 '初名'

36) 『卜居說』(국립도서관, 승계고2701-4) 卜居說 "李重煥字輝祖號靑華散人所著 初名卜居說 後改擇里志"

37) 『擇里志』(규장각, 일사古915.1.Y58t). 이 필사본은 정언유의 서문, 표준형의 서론, 본론, 결론, 이중환, 목성관, 목회경, 이봉환의 발문이 있고, 말미에 生財, 糶糴 등 성호사설의 내용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정언유의 서문의 제목은 "擇里志本名八域可居處"인 반면, 표준형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擇里志本名士大夫可居處"로 되어 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혹은 '本名'에 관한 다른 기록들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가변적인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別稱 혹은 異名이 아니라 初名 혹은 本名이라 한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이 이름들은 초기 필사본의 구성과 관련된 두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38]

"복거설" 혹은 "사대부가거처"라는 책이름은 이 책의 주제가 사대부의 주거 입지에 관한 것이었음을 뜻한다. 표준형의 구성요소로 본다면 〈복거총론〉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팔도총론〉은 상대적으로 책이름이 뜻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팔도의 말미에는 사대부가 살만한 곳인지의 여부가 총평 형식으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대부의 주거 입지론에 대한 것은 아니다. 표준형의 〈복거총론〉과 〈팔도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문과 부록, 원집과 별집의 관계일 때에만 그나마 책이름과 부합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초명, 즉 "팔역가거처"는 팔도에 관한 내용과 가거지에 관한 내용, 즉 표준형의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란히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좀 더 표준형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계열의 책이름은 모두 이중환 자신이 만든 초기 필사본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환 자신이 처음 책을 썼을 때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복거설"-"사대부가거처기" 계열이다. 이중환은 표준형의 〈팔도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자신이 "사대부가거처"를 지었다고 말했다. 필사본에 따라서 이 부분은 "士大夫可居處記", "士大夫可居地志", "士大夫卜居說", "士大夫可居誌"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대부의 취락입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추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이중환 자신의 맥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가지 일이 남게 된다. "복거설", "사대부가거처"라는 책이름(표제 혹은 내제)을 가진 필사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 필사본 가운데 저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표준형과 다르게 구성된 사례를 찾는 것이

38) 사대부가거처기, 복거설, 팔역가거처 등 택리지의 초기 이름들은 서문과 발문, 〈사민총론〉과 〈총론〉에서도 등장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일차적인 과제이다.

2) 『卜居說』의 구성

규장각에 소장된 『博綜誌』(규3742)와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博綜誌』(貴K2-4180)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같은 원본을 보고 베껴 적은 것이다. 그 하나의 원본은 尹致羲(1797-1866)가 "卜居說"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베껴 놓은 것이었다. 윤치희는 "복거설"을 베끼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설명을 붙여 두었다.

> 내가 오래된 상자 속에서 "복거설"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고는 없어질까 걱정스러워 옮겨 적었다. 뒤에 "東寓志"라는 책자를 보았다. "동우지"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책 속에서는 "복거총론"이라 했으며, (그 아래로) 〈地理〉 〈生利〉 〈人心〉 〈山水〉 〈海山〉 〈嶺東〉 〈四郡〉 〈江居〉 〈溪居〉 〈四民〉 〈八道〉 등 무릇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동우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복거설"과 부합되지만, 인심 한 가지 항목만큼은 지나친 듯하다.[39]

윤치희는 자신이 발견한 "복거설"을 그대로 베껴 두고, 말미에 "동우지"로부터 〈인심〉 항목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40] 그렇다면 상자 속 "복거설"의 원본에는 〈인심〉 항목이 수록되지 않았던 것인가. 『박종지』의 본문에 卜居의 네 가지 요소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41]은 상자 속 복거설의 원본에 〈인심〉 항목이 들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상자 속 "복거설"의 필사자는 원본에 실려 있던 〈인심〉 항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던 것이다.[42]

---

39) 『博綜誌』(장서각, 貴K2-4180) "余於古篋 得卜居說 惜遺佚 謀移寫 後觀東寓志 未知誰所作 而皆其卷中 語曰卜居總論 地理 生利 人心 山水 海山 嶺東 四郡 江居 溪居 四民 八道 凡十一條 蓋博洽文字 然論人心 一款 恐涉偏係 觀者會之 錦帆識"

40) 규장각 박종지에서 인심 항목은 〈팔도총론〉의 경기도 부분과 줄만 바뀐 채 이어져 있지만, 정문연 박종지에서는 페이지가 바뀌어 있다. 정문연 박종지는 윤치희가 상자속 복거설을 베껴 둔 뒤 그 말미에 동우지로부터 인심 항목을 추가해 넣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41) 『博綜誌』(貴K2-4180) "大抵 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42) 인심론에 대한 반응은 택리지 독자 혹은 필사자들이 보여주었던 반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윤치희가 베껴 둔 상자 속 "복거설"은 그가 나중에 본 "동우지"와 두 가지 면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상자 속 "복거설"은 전혀 항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심〉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었다. 반면 "동우지"는 "卜居總論"이라는 내제 아래 11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인심〉 항목도 제 위치(〈생리〉와 〈산수〉 사이)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자 속 "복거설"의 원본, 즉 최초 단계 혹은 그와 가까운 "복거설"은 항목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윤치희가 나중에 본 "동우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 두 개의 박종지 필사본을 토대로 상자 속 복거설의 원본, 혹은 윤치희가 본 동우지의 형태를 복원하고 이것을 표준형과 대비되는 가상의 '卜居型'으로 부르기로 한다.

복거형은 "卜居說"을 표지 제목으로, "卜居總論"을 속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地理〉 〈生利〉 〈人心〉 〈山水〉 〈海山〉 〈嶺東〉 〈四郡〉 〈江居〉 〈溪居〉 〈四民〉 〈八道〉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구성요소들은 표준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항목의 배치는 눈에 띄게 다르다.

복거형은 저자의 이름 혹은 저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李子曰" 같은 표현조차 없다. 복거형은 도입부와 11개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거총론"이라는 속 제목이 시사하듯 모든 구성요소는 卜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도입부〉 ②〈地理-溪居〉, ③〈四民〉, ④〈八道〉로 구분되는데, 〈도입부〉는 서론, 〈지리〉-〈계거〉는 본론, 〈사민〉은 결론, 〈팔도〉는 부록에 해당한다.[43]

복거형의 〈四民〉 항목은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순서가 뒤바뀐 채 바로 이어져 있다.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은 둘 다 사대부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서론과 결론처럼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거형의 〈사민〉 항목은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복거형으로 택리지를 읽으면 〈四民〉 항목은 〈지리〉에서 〈계거〉로 이어져 온 논의의 결론부가 된다. 특히 복거형 결론부의 전반부(표준형의 〈총론〉)와

43) 이것들은 표준형에서 ①〈복거총론〉의 도입부, ②명산에서 계거에 이르는 〈복거총론〉의 본론, ③〈사민총론〉과 〈총론〉, ④그리고 〈팔도총론〉에 각각 해당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후반부(표준형의 〈사민총론〉)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중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1인칭 시점 서술은 복거형 결론부에 담긴 이중환의 메시지를 필자 나름의 독법으로 읽어본 것이다.[44]

"사대부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면서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깊어졌다. 때를 만나지 못한 사대부가 갈 곳은 산림뿐이지만, 戊申亂 이후 국왕은 산림에서 조용히 살려는 선비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45]

선비가 산림에조차 돌아가지 못한다면 갈 곳은 없다. 살만한 곳을 찾아야만 하는 당위적 상황도, 살만한 곳을 찾으려는 선비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현실적 상황도 모두 당쟁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가 살만한 곳을 찾는 행위는 당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내가 복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책자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살만한 곳에 관한 여러 내용들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다룬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가 살만한 곳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최선의 상태, 궁극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당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당쟁만 없어진다면 굳이 살만한 곳을 찾거나, 살만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또 산림에 있는 선비들이 의심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쟁이 없다면 때를 만나지 못하는 선비도 없지 않겠는가.

당쟁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유감스럽게도 당쟁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대부 간의 양보와 대화, 조정과 타협으로 당쟁이 그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쟁을 없앨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체의 사물이 미분화된 상태, 즉 太極의 상태로 돌아

44) 역대의 신분제와 사대부의 유래에 대한 긴 설명은 당대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서술로 이어진다. 아래의 글은 그 뒤 상황부터 적은 것이다.

45) 『擇里志』(光文會本) 總論 "嗚呼 士大夫不得於朝 則山林而已 此諠通古今 而今則不然"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가는 것만이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해결책이다. 태극의 상태는 사대부와 농공상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대부와 농공상이 분화되지 않아야 비로소 당쟁이 그칠 것이며, 당쟁이 그치고서야 살만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일도 없게 되지 않겠는가.[46]

그렇다면 사와 농공상이 미분화된 태극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옛날에는 사대부가 따로 없고 모두 민이었다. 순임금은 요임금 때에 사대부였으나 농공상의 일을 하고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는 무엇 때문에 꺼리는가. 혹 사대부라는 이름으로 농공상을 업신여기고 농공상의 신분으로 사대부를 부러워한다면 이는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자이다.[47]

중요한 것은 사대부 신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었다고 여겨졌던 역할이다. 이제 사농공상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대부에게 요구되었던 원래의 덕목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禮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임금이 사대부로서 농공상의 일을 한 사례처럼 하지 않을 수 없다.[48]

사농공상 모두가 사대부의 덕목을 추구함으로써 태극의 상태, 권장할만한 사대부적 행실이 사농공상 모두에게 공유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쟁은 없어질 것이고, 당쟁이 없어지면 이렇듯 힘들게 살만한 곳을 찾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내가 士大夫卜居說을 지은 (진정한, 내면의) 이유는 바로 이것, 즉 사농공상이 미분화된 태극적 상태야말로 붕당을 없애는 궁극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모든 것이 희망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天時와 地理와 人和가 뒷받침이 되지 않

46) 『擇里志』(光文會本) 總論 "惟此偏論 初生於士大夫 末流之弊 至使人無所相容 有語曰 火生於木 火發必兇 故曰 東亦不可居 西亦不可居 南亦不可居 北亦不可居 如此則將無地 無地則無東西南北 無東西南北 則使一混論太極圖也 如此則無士大夫 無農工賈 亦無可居處矣 此謂非地之地 於是乎作士大夫可居處"

47) 『擇里志』(光文會本) 四民總論 "古無士大夫 皆民也 民有四 (中略) 故曰 舜堯時士大夫也 爲農工賈不恥 則抑後世 何憚焉 或欲以士大夫 侮農工賈 以農工賈 羨士大夫 則皆不知其本者也"

48) 『擇里志』(光文會本) 四民總論 "聖人之法 豈惟士大夫可能 農工賈亦可能 其果有不同者乎 (中略) 無論其爲士爲農爲工賈 當一修士大夫之行 而此非禮不能 禮非富不立 故於是乎不得不立家置業 以四禮 爲仰事俯育 持門戶之計 是以 作士大夫可居處"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는다면.. 그런 날이 오기는 오려는지....[49]

일체의 사물이 분화되지 않은 太極的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붕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말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중환은 그 태극적 상태가 도달 가능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싶어 했다. 뒤에 正祖는 초월적 군주관을 태극의 경지를 빌어 설명했다.[50] 정조의 태극론이 태극으로서의 군주 자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비해 이중환의 태극론은 태극적 상태를 만드는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정조의 태극론이 탕평정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던 데 비해 이중환의 태극론은 사대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같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중환도, 정조도 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논리적 귀결점으로서 태극을 다루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卜居型의 마지막 항목은 팔도이다. 표준형 〈팔도총론〉 「도입부」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거형의 내제가 "복거총론"이라는 점, 복거형의 본문과 결론이 이미 〈四民〉 항목으로 끝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복거형의 팔도 항목은 내용상 부록 혹은 별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擇里志"라는 말뜻이 "卜居說"과 직접 통한다는 점도 복거형이 택리지의 초기 형태였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擇은 卜, 里는 居, 志는 說에 해당한다. 택리지가 복거설에 비해 좀 더 유학적인 냄새가 날 뿐이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1752년(영조 28)에 목성관, 목회경이 "택리지"라고 부른 책을 이듬해 정언유, 이봉환이 "八域可居處"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목성관 등이 본 것이 복거설 계통(복거형)이었다면 정언유 등이 본 것은 팔역가거처 계통(표준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택리지의 책 이름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도 가능해진다.

---

49) 『擇里志』(光文會本) 四民總論 "蓋時有利不利 地有善惡 人有進退出處之異也"

50) 李泰鎭, 1992 「정조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君主論」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총서 11)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첫째, 이중환이 처음 쓴 최초의 택리지는 복거형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복거설, (사대부)가거처, 택리지 등의 책 이름은 복거형의 구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751년(영조 27) 여름 당시, 이 중환은 발문에서 이 책을 "택리지"로 불렀다. 이듬해 목성관 목회경이 그 책을 택리지라고 부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은 복거형이었다.

둘째, 팔역지, 팔역가거지 계통은 표준형의 구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1753년(영조 29) 정언유, 이봉환 등에게 발문을 부탁하고 그 책을 건네준 인물을 이중환 자신으로 볼 수 있다면, 표준형 필사본 역시 이중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51]

셋째, 동국산수지, 동국산수록, 진유승람 동악소관 등 여러 사본들은 19세기적인 택리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복거형이나 표준형에 비해 좀 더 변형이 되어 간 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 중에는 거의 지리지처럼 내용이 변질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4. 택리지의 지리지화

복거형과 표준형을 거쳐 간 택리지는 다시 지리지로 변형되어 나갔다. 『東國總貨錄』(규장각, 奎 15737)은 앞부분에 전체 목차가 붙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總貨』(장서각, K2-4189)와 직접적인 필사관계에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각 면수와 단수까지 같다.

이 책은 서문과 발문은 물론, 저자 표시도 없다. 본문은 표준형의 〈사민총론〉, 〈팔도총론〉, 그리고 〈복거총론〉중의 「지리」와 「생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형의 「인심」, 「산수」, 〈총론〉 편이 이 필사본에는 없는 셈이다.[52]

필사자는 표준형을 기초로 했으면서도 "총화"라는 책제목과 관계가 적은

5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형은 복거형에 비해 전후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환이 자신의 손으로 다시 표준형을 만들었다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중환이 자신이 저자임을 밝힐 수 없었던 정치적인 사정들이 이 문제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2) 〈복거총론〉의 도입부에서 복거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거론되었지만, 정작 본문에서는 인심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부분들을 제외함으로써 표준형과는 다른 책자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인심」은 가장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고, 「산수」는 가거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론〉은 신분제 문제에 관해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다.

복거형 그 자체는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가지만, 지리지화된 사본들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복거형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고려대에 소장된 『東國山水誌』는 복거형에 가까운 택리지가 지리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준다.[53] 책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 복거의 네 가지 조건을 거론하는 대목으로 시작되는데, 〈산수〉 항목과 그 이하의 구성이 특징적이다.

곤륜산에서 팔도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에 대한 설명은 표준형의 〈팔도총론〉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필사본에서는 〈산수〉 항목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어서 고려와 조선의 나라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복거형이나 표준형에서는 보이지 않던 내용이다.[54] 국토의 형상을 빌어 사대의 역사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표준형과 같은 내용이다.[55] 반면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 특히 속리산에서 이어지는 맥에 대한 설명은 표준형과 차이가 있다.[56]

---

53) 이 책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적지 않은 곳에서 표준형이나 복거형과는 다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물과 풍수지리의 술법에 대한 양자의 서술 차이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표준형과 복거형에 따르면 이중환은 관련 내용이 '감여가의 술서에 있으므로 갖추어 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擇里志』(光文會本) 卜居總論 地理 "水必來去合理 然後方成鍾毓之吉 此有堪輿家書 姑不具論 然陽基異於陰宅"). 그러나 『동국산수지』에서 이중환은 그 물과 관련된 풍수지리의 술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東國山水誌』 : 고려대, 薪菴文庫, B10 A127, 山水 "然 水必來去合理 然後方成鍾毓之吉 一依堪輿家定論 左旋 陽基 須以正五行雙出 五行消水 右旋 陽基 只以眞五行消水 第宅坐向 又須如來水合 淨陰淨陽 方爲純美. 一云 陽基異於陰基") 표준형에서 "논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차이들이 필사자들에 의해 생긴 것인지, 이중환 자신에 의해 생긴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필사본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필사본의 내용상 특징을 책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론하기로 한다.

54) 『東國山水誌』 (고려대, 薪菴, B10 A127) "我國在日本中國之間 地方雖小 亦足以王矣 高麗云者 取山高水麗之義 朝鮮云者 取朝日鮮明之義也"

55) 광문회본 산수 항목의 '此皆我國山水之大略也'로 된 다음 부분이다. ('大抵古人謂我國爲老人形...不及李如松 實欠典也. 광문회본 259.1-259.13)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동국산수지』의 구성이 복거형이나 표준형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뒤부터 이어지는 「八道山水」「總論江居」, 「總論溪居」, 「總論野居」, 「南師古十勝保身地」「東國勝區說」 등이다. 「팔도산수」는 표준형의 〈팔도총론〉, 복거형의 〈팔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57] 「總論江居」, 「總論溪居」, 「總論野居」은 각각 표준형의 江居, 溪居의 전반부, 溪居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복거형이나 표준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南師古十勝保身地」 뒤로 다시 표준형 「산수」항목의 말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東國勝區說」은 『동국산수지』의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표준형의 名山, 都邑, 隱遁, 海山, 嶺東, 四郡, 名刹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이 단락들에서는 표준형이나 복거형에서 찾을 수 없는 세주들도 보인다. 「總論野居」에는 "이상은 溪居野村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保寧 이하는 그 다음이다" 라는 설명이 있다.[58]

「總論野居」가 끝나는 자리, 「南師古十勝保身地」가 시작되는 자리에도 보충 설명이 있다. 사대부의 주거지 선정에 있어서 경제조건 등만을 본다면 사대부가 살만한 곳은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59]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이 경제적 조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몸을 피할 곳을 찾아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60]

『東國山水錄』(규장각, 상백고915.1, D717)은 『동국산수지』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지리지적인 체계가 돋보이는 경우이다. 「인심」 항목

56) 『東國山水誌』(고려대, 新菴文庫, B10 A127) "谷離南下外倒行北去者 爲漢南錦北之山 德裕精氣 西爲馬耳山 南作智異山 而馬耳山 又分三派 而一派倒行爲鎭岑之鷄龍山 一西行爲金溝之母岳山 一西南爲長城之蘆嶺 一南行爲潭陽之秋月山 仍撥作羅州木浦以南諸山 又東西分拽 西止於靈巖郡 東止晉州牧蟾津之南 又自海南 渡海千里 爲濟州漢拏山"

57) 「八道山水」라는 제목 뒤로 이 단락이 산줄기, 고사, 경제, 주거의 조건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此編所論 歷敍山水來脈 及各其邑故事 又敍其地理之豊薄 人居之利害云爾")

58) 『東國山水誌』(B10 A127) "以上則溪居野村之最勝地 保寧以下 爲其次也"

59) 『東國山水誌』(B10 A127) "已上皆論士大夫可居之地也 如不以江山淸致 習俗好學爲重 但以衣食樂土求之 則八道之內 處處有之矣 殆令指難勝屈矣"

60) 『東國山水誌』(B10 A127) "凡災難不到之地 謂之福地 已上十勝地 雖未知生理如何 而當此昇平旣久之時 預占栖息之所 則亦豈非君子趨吉保身之道耶"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이 빠져 있는 이 필사본은[61] 『증보산림경제』의 한 필사본에 같은 형태로 실려 있다.[62]

「지리」에 이어 「생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토지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교역에 관한 내용은 전체가 생략되었다. 강거, 팔도, 總論, 「남사고보신복지」, 名山, 도읍, 은둔, 해산, 사군, 영동, 명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동국산수지』에 비해 요약된 것이지만, 구성 자체는 유사하다.[63] '경제조건으로만 본다면 사대부가 살 곳은 더 많다'거나 '평상시 피난처를 구해 둘 필요가 있다'는 보충설명이 들어 있는 것도 『동국산수지』와 같다.

『동국산수록』은 표준형의 「인심」, 〈사민총론〉,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동국산수지』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필사자는 지리지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재구성된 택리지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사자는 또 하나의 산과 하천에 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줄을 바꾼 뒤에 기호('○')를 써서 본문을 새롭게 구성했다.

『동국산수지』와 『동국산수록』은 복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표준형보다는 복거형에 가깝다. 그러나 「지리」와 「생리」(『동국산수지』의 경우에는 「인심」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

---

61) 인심 항목은 본문 뿐만 아니라 도입부의 설명부에도 흔적 없이 삭제되었다. 주거의 조건은 지리, 생리, 인심 3자로만 설명될 뿐이다. (『東國山水錄』 (상백고 915.1, D717) "凡卜居之地 地理爲上 生理次之 山水又次之 三者缺一 非樂土也") 인심 항목이야말로 필사본의 구성 및 내용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지리지화를 시도한 필사본들중에서도 인심 항목을 삭제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인심 항목의 내용에 대한 거부반응도 적지 않았다. 윤치희가 본 『복거설』은 인심 항목 자체를 삭제한 경우라면, 『팔역지』(서울대, 일석, 915.1.Y58pp)는 본문을 적은 뒤 두주를 붙이거나 관련 내용을 고쳐 쓴 경우에 해당한다.

62) 『增補山林經濟』(규장각, 奎7676) 권16, 제 8책, 「東國山水錄」
『증보산림경제』는 홍만선의 원 저작을 유중림이 수정 보완한 것인데, 유중림이 서문을 쓴 것은 1766년(영조 42)이었다. 그러나 다른 『증보산림경제』의 필사본 가운데 「東國山水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필사본은 1766년 이후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3) '總論'은 표준형의 "溪居" 편을 요약한 것이다. 『동국산수지』에서는 표준형의 계거 항목을 계거와 야거로 구분했지만, 『동국산수록』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또 사군이 영동에 비해 먼저 나오는 것도 『동국산수지』와는 다른 점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용은 「산수」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표준형이나 복거형의 내용을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국산수지』, 『동국산수록』은 표준형이나 복거형과는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택리지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 표준형, 복거형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택리지가 다른 지리정보와 결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擇里志』(국립도서관 古 2700-12)는 19세기의 시기적 특징이 드러나는 필사본인데, 앞 부분에 택리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뒷부분에 노정기를 붙인 것이다.[64]

택리지의 본문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표준형의 〈사민총론〉, 「평안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인심」 편 중 당쟁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생략되었다. 「함경도」와 「강원도」의 내용도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표준형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李子曰"로 시작되고는 있지만, 정작 저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나(余)"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기사들조차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일화와 시문 등이 생략된 반면, 지리, 경제 관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필사자는 「인심」 편을 삭제하고 지리,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완함으로써 지리지로서의 택리지를 재구성하려 한 것이다.

『擇里志』(장서각, K2-4190)도 지리지화되어 가는 변형된 사본의 일종이다. 첫째 권은 〈인심편〉, 〈도로편〉, 〈場市편〉, 둘째 권은 〈산수편〉, 〈생리편〉, 〈당난보신복지〉, 〈가거론〉, 〈지리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에 따르면 필사자는 이완수(李完秀)이며 필사한 해는 1854년(철종 5)으로 추정된다.[65] 기본적으로 복거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형보다는 복거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66]

---

64) 뒷부분의 노정기에 보이는 厚州는 1822년에 처음 설치된 것이다.

65) 서지에 따르면 이완수가 이 책을 필사한 것은 갑인년이었다 한다. 본문에 후주(1822년) 관련 기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 필사본은 1822년 이후의 갑인년에 만들어진 셈이 되는데, 1822년이후 일제시기 이전까지 갑인년에 해당하는 해는 1854년(철종 5)이 유일하다.

66) 이완수의 필사본에서는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 〈팔도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생략되고 없다. 생략된 내용들은 복거형으로 본다면 결론(사민 항목)과 부록(팔도 항목)에 해당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필사자가 지리지와 무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삭제한 반면 인심 항목을 남겨 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지리지화를 시도한 앞서의 필사본들이 대체로 인심 항목을 삭제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완수는 어떤 의도에서 원본의 맥락을 재해석하려 했던 것인가.

이완수가 첫머리에서 인심 편을 수록한 것은, 정치에 대한 이중환의 비판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심편〉의 뒤로 〈도로편〉, 〈장시편〉을 새로 편집해 넣은 것도 이중환이 원문에서 강조했던 실용의 의미를 살린 것이었다. 그러나 필사자는 이중환이 조선 사대부의 유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 사대부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사농공상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등은 끝내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5. 맺음말

택리지에 관한 연구는 단일 저작에 대한 연구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아마도 이 책이 가지는 무게 때문일 것이다. 택리지는 조선후기의 실학사상, 지리사상의 발전, 정치사의 흐름이나 사회경제적 현황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될 만큼 중요한 책이다.

택리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는 암묵적인 전제가 하나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최남선이 교열한 택리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택리지는 당연히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었다. 최남선의 광문회본 택리지만이 의심의 여지없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택리지의 내용이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택리지 자체의 역사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이 택리지에 대해 일종의 내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 이 연구는 택리지 자체의 역사를 이해하려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중환에서 최남선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택리지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필사본 비교연구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광문회본 택리지를 토대로 가상의 표준형을 설정하고, 그 표준형을 낯선 시선으로 읽어 보았다. 그 결과 표준형 곳곳에서 구성상 어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색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준형의 서론(〈사민총론〉)과 본론의 첫 단락(〈팔도총론〉) 사이에, 또 본론의 두 번째 단락(〈복거총론〉)과 결론(〈총론〉)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 우선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본론의 두 단락 사이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현상, 취락입지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 본론의 후반부인 〈복거총론〉에 가서야 비로소 보이는 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필사본 들 중에는 표준형과 가까우면서도 일부 변형된 사본들도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런 어색함과 변형 사례들이 지적되지 않았던 것은 다양한 방식의 택리지 읽기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어색함들은 역설적으로 택리지가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르게 읽혔던 사실을 말해준다.

택리지 읽기의 다양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필사본들의 서지적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이중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필사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이중환 자신과 그 주변인물들이 붙여 놓은 글에서도 저자가 이중환임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드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서문이나 발문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적었다. 분명한 것은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서문이나 발문도 없는 필사본이 이미 영조대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초기의 필사본들은 크게 두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복거설" 혹은 "사대부가거처"라는 책이름은 이 책의 주제가 사대부의 주거입지에 관한 것이었음을 뜻했다. 반면 "팔역가거처" 계열은 팔도에 관한 내용과 가거지에 관한 내용, 즉 표준형의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란히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했다. 복거설 계열보다는 더 표준형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계열의 책이름은 모두 이중환 자신이 만든 초기 필사본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환 자신이 처음 책을 썼을 때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복거설"-"사대부가거처가" 계열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환 자신의 맥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복거설", "사대부가거처"라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는 책이름(표제 혹은 내제)을 가진 필사본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필사본 가운데 저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표준형과 다르게 구성된 사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상의 卜居型을 설정했다.

복거형은 도입부와 11개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거총론"이라는 속 제목이 시사하듯 모든 구성요소는 卜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도입부〉 ②〈地理-溪居〉, ③〈四民〉, ④〈八道〉로 구분되는데, 〈도입부〉는 서론, 〈지리〉-〈계거〉는 본론, 〈사민〉은 결론, 〈팔도〉는 부록에 해당한다. 복거형의 〈四民〉 항목은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순서가 뒤바뀐 채 바로 이어져 있다. 표준형의 〈사민총론〉과 〈총론〉은 둘 다 사대부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서론과 결론처럼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거형의 〈사민〉 항목은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복거형으로 택리지를 읽으면 〈四民〉 항목은 〈지리〉에서 〈계거〉로 이어져 온 논의의 결론부가 된다. 특히 복거형 결론부의 전반부(표준형의 〈총론〉)와 후반부(표준형의 〈사민총론〉)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주의 깊게 읽음으로써 이중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일체의 사물이 분화되지 않은 太極的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붕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말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중환은 그 태극적 상태가 도달 가능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싶어 했다.

복거형의 마지막 항목은 팔도이다. 표준형 〈팔도총론〉 「도입부」에서 「경기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복거형의 내제가 "복거총론"이라는 점, 복거형의 본문과 결론이 이미 〈四民〉 항목으로 끝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복거형의 팔도 항목은 내용상 부록 혹은 별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택리지가 복거형과 표준형을 거쳐 지리지화되어 나가는 양상도 살펴보았다. 동국산수지, 동국산수록, 진유승람 동악소관 등 여러 사본들은 19세기적인 택리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다. 복거형이나 표준형에 비해 좀 더 변형이 되어 간 사본들로서, 그것들 중에는 거의 지리지처럼 내용이 변질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택리지에 대한 다양한 독법을 복원하고, 그 위에서 저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저술의 의미를 그 시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필사본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거입지론, 사민평등론, 경제발전론 등 이중환의 사상은 광문회본 택리지가 아니라 역사화된 택리지를 통해서 그 당대적 의미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제어: 택리지, 이중환, 최남선, 필사본, 활자본

투고일(2004. 3. 16), 심사시작일(2004. 5. 13), 심사종료일(2004. 6. 4)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표 1〉 표준형의 구성

단원	대항목	소항목		번호	광문회본 택리지의 해당 부분 원문	광문회본 해당 쪽수
四民總論				1	古無士大夫 .. 人有進退出處之異也	310.1-309.7
八道總論	(도입)	연혁		2	箕崎山 一枝 .. **此我國建置沿革之大略也**	309.9 - 308.6
				3	新羅以前 .. 自高麗而始可述矣	308.6-308.10
	平安道	(지리역사)		4	**平安道**在鴨綠南浿水北, 未幾禪代	308.11-306.11
		(도별총평)		5	大率淸川江以南爲淸虛	306.11-305.1
	咸鏡道	(지리역사)		6	平安之東 白頭大脈南下 截天爲嶺 嶺東卽咸鏡道	305.2-303.5
		(도별총평)		7	太祖以朔方 受王氏禪代,西北咸平二道不可居	303.5-303.10
	黃海道	(지리역사)		8	**黃海道**居京畿平安之間, 貿遷交易 常得奇羨	303.11-302.16
		(도별총평)		9	大抵一道, 當爲要衝戰爭之場 此其所短也	302.16-300.3
	江原道	(지리역사)		10	**江原道**在咸鏡慶尙之間, 漢水漸遠矣	300.4-298.16
	慶尙道	(지리역사)		11	**慶尙道**地理最佳, 時不可往	297.1-293.5
	全羅道	(지리역사)		12	**全羅道**東與慶尙接界, 皇明賁翊之類倒 有如是矣	293.6-289.5
		(도별총평)		13	大抵全羅一道, 地遠俗淪 不可居	298.5-289.9
	忠淸道	(지리역사)		14	**忠淸道**在全羅京畿之間, 西與京畿竹山陰竹接壤	289.10-281.7
	京畿道	(지리역사)		15	忠淸之西 與京畿竹山驪州接界, 有許眉叟穩故居	281.8-273.12
卜居總論	(도입)			16	大抵 卜居之地	272.1-272.4
	地理			17	何以論地理, 此六者乃要旨也	272.5-271.12
	生理	田地		18	何以論生利..... **此乃我國田地之大略也**	271.13-269.4
		貿遷		19	貿遷交易之道, **此乃我國水道鮎利之大略也**	269.5-267.1
		(부상대고)		20	至於富商大賈, 以爲備冠婚喪祭四禮之需 又何害乎	267.1-267.3
	人心	(팔도인심)		21	何以論人心, 此乃八道人心之大略也	267.4-267.8
		(사대부인심)		22	然此從宦而論, 人心之好不好 又非可論矣	267.8-261.8
	山水	(도입)	(팔도산계)	23	何以論山水 白頭山在女眞朝鮮之界, 或云漢拏	261.9-260.10
			(유구국)	24	又渡海爲琉球國...幾死僅生	260.10-260.16
			(팔도수계)	25	一國之水則, **此皆我國山水之大略也**	260.16-259.1
			(국토형상)	26	大抵古人謂我國老人形, 不及李如松 實欠典也	259.1-259.13
		名山	名山	27	大全羅平安, 爲國中大名山 爲隱流藏修之所	259.14-254.7
		名刹	名刹	28	古語曰天下名山僧占多, 至今仍在	254.7-252.5
		都邑	都邑	29	凡山形 必秀石作峯, 此三山 皆不及上三山	252.6-251.9
		隱遯	隱遯	30	天下野之山, 小可爲高人隱士栖遯之地	251.9-250.2
			(기타)	31	至於人不可居而山以名勝稱者, 無泉石不載	250.2-250.10
		해산		32	大海山中, 映帶而絶勝者 開錄于下	250.11-249.10
		嶺東	(6호)	33	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 故人材不出云	249.11-248.16
			(기타)	34	其他如襄陽洛山寺, 有烟霞山水氣	248.16-247.4
			(기타)	35	嶺東凡郡外, 風雨之異 (鶴浦, 國島)	247.4-247.13
		四郡		36	永春丹陽淸風堤川四郡, 俱非可居之地也	247.13-246.13
		江居		37	大高山急水, 惟此可居 鴨綠豆滿不論	246.14-245.14
		溪居	(山溪)	38	謂曰溪居不如江居, 尤貧儉矣	245.15-242.2
			野溪	39	至於雜嶺之下野溪村, 始有京城士大夫亭臺樓榭矣	242.2-241.6
			(山水論)	40	大山水也者, 後之好山水者 可以此爲法也	241.6-241.10
總論				41	我國寧有士大夫, 我國處中國之外, 作士大夫可居處	

* 대항목, 소항목의 이름 중 괄호가 있는 것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제목이며, 괄호가 없는 것은 광문회본 혹은 다른 필사본들에서 확인되는 제목이다.

** 광문회본은 이익성의 번역본(을유문화사 간행) 말미에 실린 원문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표 2〉 택리지 필사본들에 표시된 책자의 이름

	도서번호	표지 (표제)	내제 (본문 시작부의 제목)	표준형의 시작 종류 제목(본문)	표준형의 종류 제목(본문)	서문(정인홍)	발문1 이중환	발문2 목성과	발문3 이봉환	발문4 복희경
규*	奎4700-55	擇里志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八域可居處	擇里誌	擇里誌	八域可居處	擇里誌
규	상백고151y58c	八域誌	靑華山人八域志抄	(士大夫可居地志)						
규	한고3430-17	八域誌	靑華山人八域誌	(士大夫可居地志)						
규	4-5732	震維勝覽	震維勝覽	(士大夫可居處記)	(士大夫可居處記)					
규	古2700-12	擇里誌	擇里誌		(士大夫可居處)					
장	K2-4190	擇里誌								
규	15580	朝野佳筆	靑華李公擇里誌							
규	상백고291511517	東國山水錄								
규	규7070	增補山林經濟	東國山水							
		萬物類聚								
장	K2-4189	東國總貨錄	總貨	(士大夫可居處)						
규	奎15537	東國總貨錄		(士大夫可居處)						
장	K2-4346	東國山川錄 彙集		(士大夫可居處)						
규	古915.y58c	擇里志	擇里志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擇里誌			
장	K2-4192	擇里誌	(士大夫可居處, 擇里誌)	(士大夫可居處)			제목없음			
규	한고3430-70	震維勝覽	震維勝覽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규	奎9-26	卜居說	卜居說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규	奎古2700-4	野史略記(卜居說)	野史記略, 卜居說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擇里志			
규	奎5742	博物誌		(士大夫卜居說)	(士大夫可居處)					
장	귀K2-4180	博物誌		(士大夫卜居說)	(士大夫可居處)					
서	고서간행회본	八域誌	八域誌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장*	K2-4184	八域可居處	八域可居處, 擇里志,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誌)	(士大夫可居處)	八域可居處	擇里志	제목없음 (擇里志)	八域可居	
규*	한古3430-67	八域記	八域記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八域記	擇里誌	擇里誌 (擇里誌)	八域可居處	擇里誌
규*	일사고291.5c68	擇里志	(擇里志, 本名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擇里志, 本名八域可居處	擇里志	擇里志	八域可居處	擇里志
규	한古3430-50	八域誌	卜居說, 八域誌	(士大夫可居處)	필사누락	필사누락	필사누락	필사누락	필사누락	필사누락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서	을쌍915.LY5dpp	六域誌	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六域可居處				
규	古4700-38	震維勝覽	震維勝覽		(士大夫可居處記)					
규*	古270-5	青華漫錄	卜居說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六域可處	擇里誌	擇里誌		擇里誌
규*	270-105	士大夫可居處擇里志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六域可居處	擇里志	擇里志(擇里志)	六域可居處	擇里志
규	古4700-11	震維勝覽	震維勝覽							
규	270-28	擇勝誌	擇勝誌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규	상빅古915.L5f63	震維勝覽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記)					
장	B15AB-2A	青邱志(擇里誌)	擇里誌	(士大夫可居記)						
장	B15AB-9	東輿彙覽	擇里誌抄				擇里誌	(擇里誌)		
장	B15AB-23	擇里誌		(士大夫可居處)		六域可居處				
장*	B15AB-16	震維勝覽	震維勝覽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장*	B15AB-2	擇里志(附封事)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六域可居處	擇里志			
규	全7B2	飜譯擇里誌(六域可居志)	六域可居志							
규	全1638	山水錄(東國山水錄)	東國山水錄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고*	B10A127신암	東國山水誌	東國山水論可居地	(士大夫可居誌)	(士大夫可居誌)		(可居誌)			
고	B10A186	六域誌	六域可居誌	(士大夫可居誌)	(士大夫可居處)		擇里誌			
고*	만송B10A4B-1	擇里誌	擇里誌("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六域可居處				
고	B10A4B	擇里志	東國山川總論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고	B10A3	擇里志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擇里志			
고	B10A3A	擇里誌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擇里誌(李重煥著)			
고*	B10A132신암	六域彙覽	卜居說	(士大夫可居處)	(士大夫可居處)					
고*	만송B10A185	六域誌	士大夫六域可居誌	(士大夫可居誌)						
고	B10A50A유동	擇里誌	擇里誌							
고	B10A50유방	擇里誌	擇里誌							
고	B10A110신암	震維誌	震維勝覽							
규	古270-3	雜錄誌	總貨							
규	하고古6-5	東國山川關防事攻總錄	總錄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Abstract〉

A Historical Re-reading of *Taengni-ji*(擇里志): A Comparison of Written Texts

Bae, Woo-sung*

Taengni-ji is well known as a geographical text in the late Choseon Dynasty. This book, originally written in manuscript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was edited and published by Choi Nam-seon in 1910's. There have been many articles on this book, but none of them has yet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manuscript and the published one.

Contrasting the manuscripts is the efficient method to reread *Taengni-ji*, because the duplicated ones with various titles were reproduced and read rapidly among the ordinary Confucians.

The differences were found not only between the manuscript and the published one but also the original one and the other duplicates. This study clearly indicates that historical materials should be treated and analyzed in the historical context.

Key Words : *Taengni-ji*, Lee Joong-whan, Choi Nam-seon, manuscript copy, printed copy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